

## 기후변화 대응 뜨거운 베트남 '쌀 올림픽'(IRC) 개막

### 지구인 절반을 먹여살리는 쌀 미래세대 남겨줄 농법 경연장

하노이=글·사진 송기동기자

“병충해도 문제지만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다. 예전에는 하루 2달 러면 충분했지만 지금은 5달리를 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 젊은사람들이 공장이나 도시로만 가려해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

9일 '쌀 올림픽'으로 불리는 '2010 세계쌀회의(International Rice Congress)'가 개막된 베트남 수도 하노이시 판흥가(街)에 위치한 국립컨벤션센터.

인도 방글라 농업과학대 시드 고다(47)박사는 “농기계의 빠른 보급이 어렵고 농민도 지식이 부족해 기계화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 기름 극복 방법 국제공조

서부 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에서 온 '아프리카 쌀센터' 코디네이터 무사 씨(56)박사는 “동남아시아처럼 벼를 손쉽게도 잘자라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기계화도 안돼 있다”고 밝혔다.

밀, 옥수수과 함께 세계 3대 작물로 손꼽히는 쌀은 전세계 60억 명의 인구 가운데 50%가 주식으로 삼고 있으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남미, 말리 아프리카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세계 각국 쌀 과학자들은 당면과제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쌀 연구와 함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기계화를 손꼽았다. 최근 연구에서 지난 25년동안 아시아 지역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쌀 생산량



9일 베트남 하노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0 쌀회의'에 참석한 과학자들이 베트남 쌀가공식품 코너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대회는 12일까지 계속된다.

이 10~2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광주업체 금강 유일 참여

국제미작연구소(IRRI)와 베트남 농업부가 공동주최한 이번 대회는 중국 베이징(2002년), 인도 뉴델리(2006년)에 이어 3번째로 열리는 대회로 '미래세대를 위한 쌀'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쌀과학자, 농업인, 정책결정자, 기업인 등 1만5000여명이 참가하는 매우 드문 행사이다.

'기후변화와 쌀 농업' 등 선행별 260여편의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담은 주제논문이 발표됐으며, 바이오텔 등 쌀 관련 50여개 업체가 참여해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부스를 열었다. 국내에선 광주의 금강(주)이 유일하게 참여해 북도지파를 선보였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기조연설에서 한스 R. 헤렌(미국 밀레니엄연구소 소장)은 “차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쌀생산에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인구증가와 곡물수요 증가 등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미래세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하다는 점이 집중 부각됐다.

한국농수산대학 박광호(52) 교수는 “기후변화는 특정국가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탄소배출 등 환경변화에 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 또 농업선진국이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30~50여년 걸려 쌀은 농업노하우를 후진국에 이전하면 후진국은 빠른 시일내에 따라잡아 식량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song@kwangju.co.kr



#### 겨울 길목 무등산 첫 눈

9일 새벽 광주 무등산 정상에 첫눈이 내렸다. 서석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등산객이 하얗게 내려앉은 눈을 반가운 듯 밟고 있다. 이날 새벽 구례군 지리산 성삼재 부근에도 2cm가량 눈이 내렸으며, 전남 진도군 침찰산에서 올 가을 들어 첫눈이 관측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지역 국회의원 '시련의 계절'

### 청목회 연루·정치적 좌절 잇따르고 C&·태광 비자금 약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로비 연루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로비 의혹이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을 덮고 있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강기정 의원은 청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강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대

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 정국에 파장을 불러온데 이어 소송전까지 휘말렸다. 대우조선해양은 8일 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및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남부지검과 남부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당내 주류 측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패배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공천 헌금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최

인기 의원은 청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유선호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시절에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정치적 좌절도 이어지고 있다. 김효석 의원과 유선호 의원은 지난 10·3 정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예산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박주선 의원은 정당대회에서 지도부에 겨우 턱걸이로 진출한 데 이어 최근 지구당 인사가 보고도 없이 청

목회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체면을 구겼다.

박상천 의원은 상반기에 이어 두차례 연속 국회 부의장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퇴거하는 모습이다.

조영택, 김영진 의원은 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10·27 재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연속으로 무소속 후보에 패배하면서 '공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다.

주승용 의원은 시련이 겹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선 톨을 둘러싸고 후보 등록을 미루다가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지구당 인사가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는 6년여만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소환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까지 받았다.

김재균 의원은 지난 9월 광주시당 위원장에 선출된 뒤 치러진 10·27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패배한데다 광주시가 자신의 땅을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것과 관련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지역 중진 의원들의 경우, 검찰의 C& 및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 아직까지 연루설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올해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잊고 싶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역량 등에서 한계를 나타내 차기 총선에서 물갈이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의회, F1 조사특위 구성키로

전남도의회가 F1(포물러원) 국제자동차대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주장 건설 지연과 공사비 증액, 티켓 판매를 비롯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열흘간으로 예정된 전남도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 기간에 상임위원회(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

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 사무감사가 끝난 뒤 곧바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F1 대회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F1대회 운영법인인 KAVO와 조직위원회, 전남도 지원본부에 대한 전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9~22일 실시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정영조 KAVO 대표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9일 보낸

데 이어 42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요구 자료에는 ▲경주장 설계비 및 부분별 건설비 현황 ▲경주장 시설비 추가계약서 ▲경주장 완공 지연 이유 및 계약서 내역 ▲티켓 발행 및 판매 현황 ▲경주장 광고 계약금액 및 기념품·식당·기업체 임주계약서 사본 ▲경주장 건설 노동자 임금 미지급 내역 ▲외국인 관광객 현황 ▲티켓사 계약서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문제가 된 자유이용권 발매 현황과 안내요원 등 자원봉사자 명단 및 교육 일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고구려대학 입학문의  
06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12월17일-22일  
가 군원사접수  
각대학원원사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기석·박사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교육대학원·보건경영대학원  
원서접수 11월 19일(금) ~ 11월 26일(금)  
남부대학교 | 062-970-0040-7

세계를 뒤흔든 바로 그 뮤지컬!  
전세계 3천만 관객의 돌풍! 문화수도 광주에 상륙!

## 뮤지컬 맘마미아!

2010년 12월 3일(금)~5일(일) 총 5회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 광주일보 | KBC | KCTV 광주방송 | 주관 | 공연마루

BENNY ANDERSSON & BJÖRN ULVAEUS'  
**MAMMA MIA!**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